

## 치 사

오늘 우리는 능산리 사지에서 발굴된 유적과 똑같이 재현된 능사의 재건을 알리는 삼존불의 점안과 개원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흔히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비운의 국가이고,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전설이 감상을 자극하는 '잃어버린 왕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인식 속에서 외면 받고 사라졌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백제가 중국과 일본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강성한 국가이며 중국은 물론 인도와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문화대국이었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백제의 문화는 일본 아스카문화의 원류가 되어 일본 고대 문화의 원형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 멀리 동남아에 까지 그 영향을 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곳에 건립된 능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능사가 위치  
했던 능산리 사지에서는 지난 1993년  
화려함과 정교함을 함께 갖춘 '백제  
금동대향로'가 발굴됨으로써 백제의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을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재현되어  
있는 이 웅장한 5층 목탑은 우리나라  
에는 모두 소실된 백제의 목탑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일본 호오류  
(法隆)사의 백제탑을 근거로 재현한  
것으로써 백제의 문화가 일본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을 새롭게 확인  
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목탑의 심초석에서 국보288호로 지정된 “창왕명석조사리감”이 발굴되어 서기 567년에 사리를 봉안하고 탑을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능산리에서 이곳으로 장소는 옮겨졌지만 1400여년 만에 백제의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가람이 이곳에 서게 된 것은 이 땅에 찬란한 문화의 꽃을 비운 백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 백제문화단지에는 능사 외에도 백제의 왕궁을 재현한 사비궁과**

**생활문화마을, 그리고 고분공원 등  
과거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백제의 유물을 전시한 백제역사문화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전통문화학교 등의 문화교육시설은  
물론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갖추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종합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갖추는데 장장 14년간  
7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과**

**재원을 투여하여 이곳에 백제문화단지가  
서게 된 것은 잃어버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찾고 지켜내고자 했던 이 지역  
주민 여러분과 충청남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충남도민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원하는 능사는 본래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된 왕실의  
능침 사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우뚝 선 대가람 능사는 이제  
충청도민은 물론 찬란한 대제국 백제**

**문화의 부흥과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는  
호국사찰로 그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능사 건립으로 도민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고 충청지역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하며 인사에 대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9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